

## 신무림제지, '무림페이퍼' 로 사명 변경 · CI 공개

제지 전문기업 신무림 제지(대표 김인중, www.moorim.co.kr)가 사명을 바꾸고 글로벌 제지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신무림제지는 지난 7월26일 모기업 무림제지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명을 '무림페이퍼' 로 변경하고 CI와 슬로건을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CI는 미래를 향한 다리를 형상화한 브릿지(Bridge)와 무림의 영문 워드마크로 이뤄졌다.

영문의 블루컬러는 비전과 신뢰의 투명한 기업이념을, 브릿지의 그린 컬러는 환경 및 고객 친화적인 기업이념을 상징한다. 슬로건 'Bridging the Future' 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림의 의지로 미래를 여는 다리, 고객을 향한 다리, 문화를 잇는 다리, 행복으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인중 사장은 "신무림제지는 모기업 무림제지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억원 이상을 들여 경영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등 새로운 50년을 향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무림페이퍼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나는 만큼 경쟁력 강화로 국내 제지산업을 이끌어어나가는 글로벌 제지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립 50주년을 맞은 특수지 전문기업 무림제지도 '무림SP'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고객들을 만나게 됐다. SP는 Special Paper라는 의미다. 이와 신동에너지, 오피스웨이, 무림물류 등 신무림제지 관계사들도 각각 '무림파워텍', '무림오피스웨이', '무림로지텍' 등 무림으로 통합된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됐다.

## 무림페이퍼 · 무림SP, B2B e-SALES 사이트 재개장

무림페이퍼 · 무림SP는 지난 7월3일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재고확인 과 주문이 가능한 B2B e-SALES 사이트를 재구축, 새롭게 오픈했다. 새롭게 개편된 B2B e-SALES 사이트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전자보증제도를 도입, 회원의 구매한도가 증대되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구매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푸짐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지향하는 전문 B2B e-SALES 사이트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사용자 위주로 개선된 편리한 주문등록 및 조회 화면을 갖추고 클레임 처리에 대한 고객 만족도 입력이 가능하게 됐다. 미결제어음현황, 담보설정현황 등 거래 관련 다양한 정보

도 제공한다.

한편, '무림 B2B e-SALES 시스템' 은 지난 2005년 1월 오픈한 이래 범창지류판매, 삼화인쇄 등 100여개의 주요 고객사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moorim.papermarketplace.co.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 신호제지, 인쇄 실무자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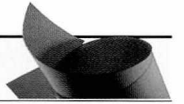


신호제지는 지난 7월12일 인쇄사 및 관련업체 담당실무자 초청, 오산 · 신탄진공장 중앙연구소 견학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호제지 측은 "공장 방문을 통해 신호제지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견학행사에 22개 업체 30여명이 참석했다"며 "견학을 통해 인쇄사 담당실무자들은 인쇄용지의 생산과정과 제지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에도 고객사를 초청하는 후속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지 및 인쇄업계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이에 대한 이해를 넓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신호제지, 강원대와 산학 교류협력협정 체결

신호제지는 지난 7월13일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와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신호제지 최우식 대표를 비롯한 신호제지 임직원들과 강원대학교 최현섭 총장 등 관련 교수 및 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산 · 학 상호간의 협동 체제를 확립하여 인재개발 및 산학연구 지원에 관한 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번 교류 협정은 우수 인재 추천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경험 제공, 장비 이용, 연구원 재교육, 기술개발 및 산학 연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산학협동 체결식에서 최우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산학협력으로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호제지는 지난 5월 용인송담대학 내 산학협동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강원대학교와의 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산학 협동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 계성제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가져



계성제지는 지난 6월28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본사 계성종이역 사박물관에서 최낙철 회장, 3개 공장 노조위원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낙철 회장은 개막식사를 통해 “창립 40주년의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회사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준 전·현직 임직원과 노사분규 없이 40년 동안 노동조합을 이끌어 준 전·현직 노조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과 아울러 오늘의 계성제지가 있기까지 보내준 고객의 꾸준한 성원과 지지에 대해 임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IT 및 첨단산업에 맞는 ‘미래의 종이’, 즉 일반적인 원지나 백상지 개념의 종이를 중간단계의 원료로 분류하고 이것을 가공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종이인 신제품(Tripine Silk, Tripine Art Nouveau, Velvet Natural, Velvet Cream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계성제지 40년을 향해 우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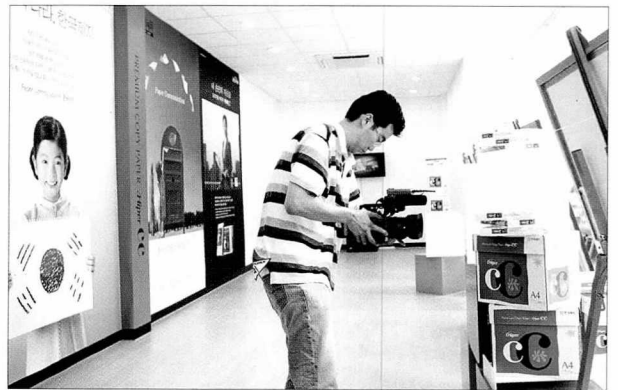
## 덕신초등생 225명 한국제지 온산공장 견학

지난 7월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덕신초등학교 학생 225명이 한국제지 온산공장을 방문, 견학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지 측은 “이번 공장 견학은 생활필수품인 ‘종이’의 소중함을 이해시키고 인근 지역에 있는 한국제지에 대한 친근감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던 만큼 안전을 최우선하여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

대한 배려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현장을 둘러본 학생과 선생님들은 거대한 기계들과 깨끗한 제조공정에 감탄했으며 한국제지의 프리미엄 카피지인 하이퍼CC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 케이블 뉴스전문채널 mbn, '디자인이 브랜드' 방송촬영



한국제지는 지난 7월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케이블 뉴스전문채널 mbn(매일경제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디자인이 브랜드’의 방송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한국제지의 프리미엄 복사용지 하이퍼CC의 제품 우수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탁월한 브랜드 디자인을 선택했음을 알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제지의 모습이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최낙철 계성그룹 회장, 한국펄프종이공학회로부터 공로패 받아

최낙철 계성그룹 회장은 지난 7월3일 한국펄프종이공학회(회장 박종열)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로패 수여는 최낙철 회장이 지난 6월6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06 환태평양 펄프종이국제학술대회’의 대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제지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며 성공적인 대회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결정됐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